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8월  
교육학석사(기술·가정교육)학위논문

# 중학생들의 과시소비 및 자원절약행동에 관한 연구

： 가족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교육전공

안 수 정

# 중학생들의 과시소비 및 자원 절약행동에 관한 연구

- 가족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

The Research of Ostentation Consumption Life and  
Resource Saving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family relation characteristics

2017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교육전공

안 수 정

# 중학생들의 과시소비 및 자원절약행동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양 남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기술·가정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교육전공

안 수 정

안수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정 옥 임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양 남 쇠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노 은 희 

2017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ABSTRACT	1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4
제2절 연구문제	6
제2장 이론적 배경	7
제1절 청소년의 정의	7
제2절 소비자사회화	9
제3절 가족응집성	13
제4절 과시소비행동	16
제5절 자원절약행동	18
제3장 연구방법	20
제1절 조사대상자	20
제2절 조사도구의 구성	20
제3절 자료분석방법	22
제4장 연구결과	23
제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3
제2절 연구대상자의 주요변인에 따른 과시소비성향	28

제3절 연구대상자의 주요변인에 따른 자원절약행동	.....33
제4절 연구대상자의 과시소비행동에 따른 자원절약행동 의 차이	.....39
제5장 결론 및 제언	.....40

### 참고문헌

### 설문지

## 표·그림 목차

<표 1> 연구대상자의 개인 관련 특성 .....	23
<표 2> 연구대상자의 가족 관련 특성 .....	25
<표 3> 연구대상자의 소비생활교육 관련 특성 .....	27
<표 4> 과시소비 및 자원절약행동의 일반적 경향 .....	27
<표 5> 개인 관련 특성에 따른 과시소비행동 .....	28
<표 6> 가족 관련 특성에 따른 과시소비행동 .....	30
<표 7> 소비생활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과시소비행동 .....	32
<표 8> 개인 관련 특성에 따른 자원절약행동 .....	33
<표 9> 가족 관련 특성에 따른 자원절약행동 .....	35
<표 10> 소비생활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자원절약행동 .....	38
<표 11> 과시소비행동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의 차이 ...	39
<그림 1> 워드와 로버트슨의 소비자사회화 모델 .....	10
<그림 2> 모쉬스와 처칠의 소비자사회화 모델 .....	12

## ABSTRACT

### The Research of Ostentation Consumption Life and Resource Saving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family relation characteristic

Ahn Su-Jung

Advisor : Prof. Nam-hee Yang Ph.D.

Major in Technology and Home-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Modern consumers are showing a different lifestyle from the past. Irrational consumer trends such as conspicuous consumption are emerging. While this tendency is expanding not only to adults but also to adolescents, its intensity is increasingly stronger, which can establish it as one of the social problems

Among them, adolescents of today can now enjoy more abundant consumer life such as abundant services as well as materials due to the increased amount of their discretionary consumption than the past and are very active and substantial consumers. In other words, adolescent consumer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While adolescents came to play the role of consumers with social influence, they have not had proper learning regarding this at home or school. Wrongful consumption behaviors formed between peers with no accurate knowledge of or standard for consumption are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Among them, the biggest problem is adolescent consumers' conspicuous consumption behaviors.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at are the effects on middle school students' conspicuous consumption and their resources-saving behaviors.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established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are as follows.

Study Issue #1: What is the general trend of conspicuous consumption and resource saving behaviors of the subjects of the study?

Study Issue #2: What is the tendency of conspicuous consumption of the subjects of the study influenced by?

Study Issue #3: What are the resource saving behaviors of the subjects of the study influenced by?

To solve these research questions, the study randomly sampled 270 students in the second grade from 3 schools in the Gwangju area and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with them.

This study selected the variables related to middle schoolers' conspicuous consumption and resources-saving behavior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the research tool was constructed by the author of this study after modifying and complementing those of previous studies to match with the purpose and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and specific methods are as follows.

1)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of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study subjec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calculated

2)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of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consumer life education were calculated.

3) A descriptive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 variables related to their conspicuous consumption and resources-saving behaviors.

4)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ir conspicuous consumption and resources-sav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one-way ANOVA were conducted, and Duncan's test was used for post-test to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5)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ir conspicuous consumption and resources-sav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ir consumer life education,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one-way ANOVA were conducted, and Duncan's test was used for post-test to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6)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ir resources-sav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ir conspicuous consumption, one-way ANOVA was conducted, and Duncan's test was used for post-test to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tudy subjects'

conspicuous consumption according to their genders and allowances. In addit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resources-sav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ir genders, while there was none in their allowances.

Secon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conspicuous consumption according to their fathers' and mothers' levels of education, the status of their parents' dual incomes, and their families' cohesion, while there was none in their fathers' and mothers' jobs, their household incomes, and their living standards.

In addit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resources-sav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ir fathers' levels of education, their household incomes, their living standards, and their families' cohesion, while there was none in their mothers' levels of education, their fathers' and mothers' jobs, and the status of their parents' dual incomes,

Thir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conspicuous consumption according to their and their parents' consumer life education, the places of the consumer life education,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s for the consumer life education, and consumers' socialization.

In addit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resources-sav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ir parents' consumer life education and consumers' socialization, while there was none according to their parents' consumer life education, the places of the consumer life education, and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s for the consumer life education.

Fourth,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resources-sav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ir conspicuous consumption.

To sum up, the advanced research results of adolescents' consumption trends could be obtained through researching middle schoolers' conspicuous consumption lives and their resources-saving behaviors, and it is judged that these results will be utilized as academic base for educational data for the inculcation of the awareness for right consumer life and resources-saving into the minds of middle schoolers who have come to play the role of consumer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경제의 발전 및 개발 중심의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나타난 경제발전은 사회변화와 더불어 개인의 생활에 있어 물질적인 풍요를 행복의 가장 우선 조건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중대시키는 경향을 가져 왔다(박민정, 2009). 이러한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고 있는 생활태도 및 가치관은 소비를 증가시키며, 그로 인하여 고용 및 소득이 증대되고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가 과시소비로 인한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을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선행연구(임경희;1997, 홍진희;2007, 소영하;2010, 이희경, 1991; 이기춘;1985, 1993; 박은아, 1994; 백경미, 1995)를 살펴볼 수 있다.

그 중에서 몇 연구를 살펴보면 임경희(1997)는 소비를 통해 심리적 행복을 추구하는 물질주의적 생활양식에 의한 지나친 과소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도 예외일 수 없어 고등학생의 89%가 충동구매를 한 경험과 성인들의 과소비 성향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고, 동료 집단이나 대중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유행에 민감하고 모방적이며 낭비적인 구매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홍진희(2007)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공업화에 따른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기존의 생활패턴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자의 욕구수준 상승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기능성보다 제품의 상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상징하는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행동을 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에 청소년들 또한 주부 못지않게 과시소비 성향이 나타나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청소년은 소비를

화대하는 주도적인 연령층으로 부상하여 마케터들의 주요한 표적 시장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

소영하(2010) 역시 사회발전과 가정 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청소년이 소비자로서 비중을 가지게 되면서 과시소비행동 및 소비자로서의 태도에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듯 현대 소비자들은 과거와 다른 생활양식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과시소비와 같은 비합리적인 소비성향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아동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그 성향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중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하여 자유재량소비액의 증가로 인하여 풍부한 물질은 물론 서비스 등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며, 매우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소비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청소년 소비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리라고 본다.

또한 청소년 시기는 현재와 미래의 소비자 사회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비성향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들을 알아보는 것은 자원절약행동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물질만능주의가 기본 이상이 되어버린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청소년의 비합리적인 소비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선정하고 이를 통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아 존중감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즉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 부족한 자신감은 사람들의 내적인 부분을 소홀하게 만들고 외적인 부분과 과시소비 및 충동구매의 성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최순종, 2009).

따라서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소비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가정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소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기준 없이 또래 사이에서 형성된 잘못된 소비행동이 청소년 소비자의 과시소비행동으로 이어져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과시소비행동과 자원절약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시소비와 자원절약에 대해 그 실태를 알아보고 소비생활의 올바른 행동을 유도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으로 중학생을 선정한 것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 가장 문제가 많다고 여겨지는 청소년을 다루고 있으며, 청소년의 소비생활에 있어서 과시소비 생활과 자원절약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 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 연구대상자의 과시소비 및 자원절약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 연구대상자의 과시소비성향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연구문제3 : 연구대상자의 자원절약행동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 제2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청소년의 정의

청소년은 사회와 문화, 시대적 요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학자들의 학문 영역과 국가의 이념, 사회체제 등 외부적인 요소에 의하여 다르게 규정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특징으로 Erikson은 청소년기를 정체성 확립과 정체성 혼미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기로 규정했고(김성이 · 조학래 · 노충래, 2004), Friendenberg 는 청소년들이 부모나 다른 권위적 인물과 갈등을 경험하며 발전한다고 설명했다(이인정 · 최해경, 1999).

일반적으로 청소년을 의미하는 'adolescence'라는 용어는 어원상으로 라틴 어의 'adolescere'에 해당하는 용어로 성인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 또는 성숙으로의 성장을 의미한다(김아름, 2010). 신체적, 심리적, 생리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사이에 속하는 유예기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으로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성인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과도기 혹은 준비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중 심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될 만큼 방황과 갈등, 반항의 시기이며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시기이다.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 목표, 역할, 가치 및 이념 등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 성에 대한 자각 및 이에 부합하는 자기통합성과 일관성의 획득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춘기를 지나면서 2차 성장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자신과 사회에 대하여 매우 불안정상 상태를 보여 청소년기를 과도기, 중간인, 제 2의 탄생기, 중간세대, 질풍노도의 시기, 연소성인 등으로 불리운다.

또한 소비자로서의 청소년기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함에 따라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심한 갈등을 겪게 되면서 이런 갈등을 과시소비, 모방소비, 충동구매, 과소비 등과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의 소비행동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이기준, 1999). 청소년은 소비에 있어서 동료집단과 TV광고와 같은 대중매체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데, Moore와 Stephens(1975)은 아동이 청년이 되어감에 따라 소비자사회화의 요인으로서 부모보다는 또래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하였다(이기준, 1999).

청소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정확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으로는 신체적 특성에 의한 구분, 연령에 따른 구분 등이 있다.

먼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특징(월경, 사정의 시작)으로 청소년기를 구분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징후 및 사춘기 특성이 나타나는 시기들이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 또한 청소년기가 언제 끝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사춘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징후로 판단되기보다 그 사회에서의 역할 기대를 충족시켜 책임질 수 있는 시점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연령에 의한 것이다. 1985년 UN에서 공식으로 규정한 청소년의 개념은 ‘15세부터 24세 사이의 집단’이며, 국제식량 기구(FAO)에서는 ‘10세에서 24세 사이의 결혼 여부를 불문한 남녀 인구’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의 성격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이며, 민법에서는 ‘만 20세’를 성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남미애, 2003).

이와 같이 청소년은 통일된 개념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각 목적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유동적으로 적용하였다.

## 제2절 소비자사회화

### 1. 소비자사회화의 정의

소비자사회화에서 사회화란 개인이 집단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지식, 기능, 성향을 획득하는 과정, 또는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과 경험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뜻한다.

일반적인 사회화 이론을 소비자연구에 적용시켜 소비자사회화 이론을 제시한 학자는 워드(Ward, 1974)로, 그에 따르면 소비자사회화란 사회화의 하위 개념으로써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기능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로서의 지식, 태도, 기능 등을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하게 계속적으로 개발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이기춘(1999)은 전 생애에 걸친 과정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때 어떻게 역할을 학습하는가에 따라 소비자사회화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소비자사회화란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로서의 지식, 태도, 기능 등을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하게 계속적으로 개발시켜 나간다는 점에 있어서 전 생애에 걸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소비자사회화는 인지발달이론과 사회학습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인지발달이론은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서 인지발달이란 일상생활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는 능력과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아동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감각운동기(0-2세까지), 전조작기(2-7세), 구체적조작기(7-10세), 형식적조작기(12세 이상)라는 인지 발달 단계를 거치며 사회화로써의 질적 변화를 갖게 된다. 그리고 유전된 신체 구조에 의해 지적 기능의 범위가 결정되며, 신체적 구조는 성숙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Piaget에 의하면 지식은 개인 내에서 발생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인지적 갈등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발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은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존재이며,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는 아동의 인지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가지 물리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을 가능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에게 제시된 경험의 유형과 아동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 간에 지나친 격차가 있으면 진정한 학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므로, 교사는 적절한 시기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고려해야 한다(권대훈, 2009).

워드와 로버트슨(Ward & Robertson)은 소비자사회화 과정의 개념적 모델을 인지발달 이론을 기초로 설명하였는데, 그들은 소비자사회화 과정을 자극 -> 유기체 -> 반응의 3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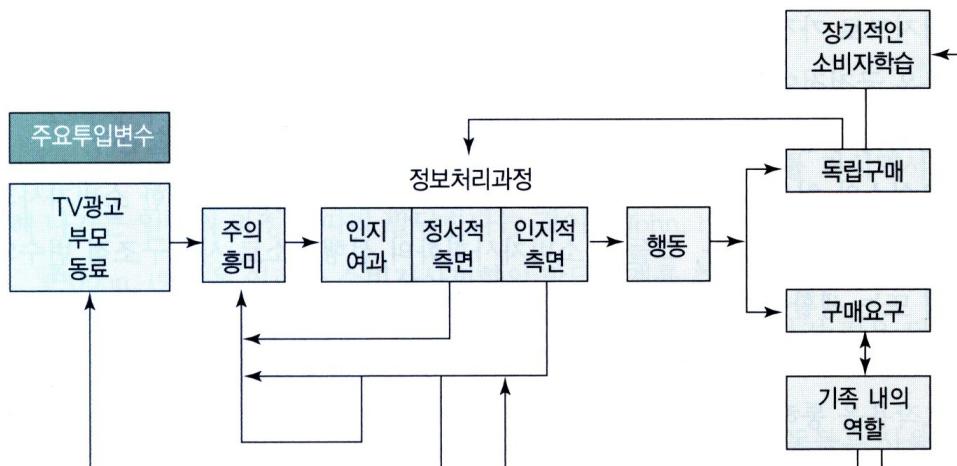


그림 1 워드와 로버트슨의 소비자사회화 모델

주요 투입변수는 학습자의 주의와 흥미를 끌고, 호기심을 자극하게 된다. 주의와 흥미를 느낀 학습자는 자극에 대해 정보처리를 하게 되는데, 정보처리과정은 소비자 개인의 정보선택능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성인의

정보처리과정에는 자극에 대해 걸러내는 기능인(거짓과 진실, 필요와 불필요 등) 인지여과 기능이 발달되어 있다.

반면에 어떤 아동에게는 이 기능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못하며, 노인의 경우는 이 기능이 쇠퇴해져 거짓 정보나 판매 전략에 현혹당하기가 쉽다. 정보처리가 끝나면, 그 결과는 두 가지 행동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원하는 제품이 있을 때 독립적으로 구매하는 독립구매 형태와 다른 하나는 다른 가족에게 사달라고 요구하는 구매요구 형태이다. 워드와 워크맨(Ward & Wackman, 1972)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동소비자의 구매요구는 감소하는 반면, 독립구매에 대한 부모의 수락 정도는 많아진다고 하였다.

**반면에** 사회학습이론은 사회화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소비자의 인지와 행동 형성이 다른 환경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소비자사회화 과정은 모방과 강화(reinforcement)를 혼합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반두라(Bandura)의 모방이론과 스키너(Skinner)의 강화이론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반두라의 모방이론에 의하면 아동기에는 타인이 행하는 소비행동을 모방하면서 소비자로서의 역할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가정에서 부모의 소비자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스키너의 강화이론에서 강화란 작용요인에 의해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긍정적 강화(상)와 부정적 강화(벌)을 말한다. 즉 학습자는 사회화 작용요인이 보상을 준 과거의 행동은 반복하고, 처벌받았던 행동은 반복하기를 꺼리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로 모쉬스와 처칠(Moschis & Church, 1978)의 사회학습 이론에 의한 소비자사회화 모델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소비자사회화의 선행요소로 사회구조적 변수와 연령 또는 생활주기 단계를 들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가족, 대중매체, 동료집단, 학교 등 사회화 대행 변수에 의한 모방, 강화 또는 모방과 강화가 혼합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학습 결과가 소비자사회화로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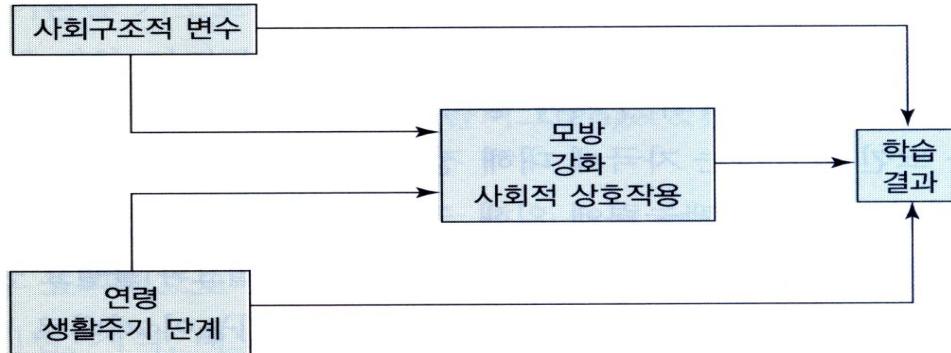


그림 2 모쉬스와 처칠의 소비자사회화 모델

한편 카마루딘과 모킬이스(Kamaruddin & Mokhlis, 2003)는 소비자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조사한 연구에서 사회화 대행변수와 관련된 사회구조적 변수로 사회계층, 성별, 민족성, 거주지, 종교를 제시한 바 있다.

소비자사회화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아직 미미한 편이나 연구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현지(2008)는 소비자사회화 관점에서 청소년소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소비자사회화과정을 가족, 동료집단, 대중매체의 모방, 강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구체적인 관계형태로 파악하여 청소년의 소비자사회화과정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청소년소비자들의 신중하고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환경 친화적 소비행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전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가정, 학교, 대중매체, 정부 등에서 꼽고루 행해짐은 물론 사회적으로 제도적 차원에서도 그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다고 논의하였다.

정지영(2003)은 청소년은 미래의 생산자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주역이고, 그들의 소비패턴은 성인에까지 연장되고 확대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올바른 소비자사회화과정을 통한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이들이 소비자로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소비자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먼저 부모는 청소년자녀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간접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 자녀가 긍정적인 소비자행동을 했을 경우 칭찬하여 주고, 또한 잘못된 소비자행동을 했을 경우 시정해주는 등의 적극적인 소비지도 방식을 행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 제3절 가족응집성

### 1. 가족응집성의 정의

가족 응집성이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이며 (Olson, Bell & Portner, 1982),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념 중 하나이다(송미애, 2007). 가족응집성은 외적으로는 가족 경계선의 침투성을 내적으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독립과 결합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다(장지연, 2006). Olson(1993)은 응집성 외에 상황에 대처하는 가족의 유연성을 나타내는 가족적응성을 네 단계로 분류하여 가족체계가 응집성과 적응성의 복합적인 차원에서 기능한다고 볼 때, 두 측면이 적절하게 기능하면 응집성이 좋은 가정이고 한 측면이라도 극단적으로 치우칠 경우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Circumplex 모델에서 가족 응집성을 진단, 평가하는 데는 8가지 구체적 하위 영역들이 사용된다. 그것은 가족성원간의 정서적 결속, 가족 외부 환경과 하위체계들 간의 경계, 가족 내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대상과 정도, 가족의 공동시간과 개인의 사적시간의 허용 정도, 가족의 공동공간과 개인의 사적공간의 허용정도, 가족의 공동친구와 개인의 사적친구의 인정, 의사결정의 유

형, 가족전체 활동과 개인 활동의 보장 정도를 알기 위한 흥미와 오락의 변수이다. 이러한 8가지 하위영역에 의해 측정되는 가족옹집성은 그 정도에 따라 높은 점수로부터 과잉분리, 분리, 연결, 밀착의 네 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

Circumplex 모델에 의하면 가족옹집력과 가족 기능은 직선적이 아닌 곡선적인 관계로서 설명할 수 있다. 가족옹집력이 높게 나타난 가족은 서로 밀착된 가족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지나친 동일시와 관여로 인해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가족 내에서의 충성과 일치가 강조된다. 반면 가족옹집력이 매우 낮은 과잉 분리된 가족은 가족성원이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지나친 자율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개인의 일은 오로지 자신의 문제로 밖에 여겨지지 않아 가족에 대한 애착과 참여가 제한된다.

위의 두 가족의 경우는 역기능적인 가족기능이라 말할 수 있다. 가족옹집력이 적당히 낮은 가족은 분리된 가족이고 적당히 높은 가족은 연결된 가족이다. 이 두 가족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가족 일치 간에 균형이 이루어져 가장 효과적인 가족기능 체계를 유지하게 되며 이런 가족 체계에서는 개인의 발전에도 최적의 수준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가족옹집력이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착의 정도가 개인의 자율성과 균형을 이루며 효율적인 가족 기능을 수행하며 개인의 정서적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Circumplex 모델에 의하면 가족적응력도 가족의 기능과 곡선적 관계를 가진다. 즉 적절한 수준의 가족(융통적, 구조적 상태의 가족)의 경우 민주주의적인 리더십 밑에서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역할과 규칙이 변화되고 가족의 문제해결능력이 좋기 때문에 가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한다. 반면에 가족적응력이 가장 낮은 경직된 가족의 경우 엄격한 규칙 준수 및 경직된 역할구조,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밑에서 가족 성원들의 문제해결능력을 제한을 받아 가족 내외적인 스트레스에 기능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또한 가장 높은 적응성을 보이는 혼동의 가족의 경우에는 무질서한 역할분담, 일관성 없는 가족 규칙으로 인해 가족들은 책임의 한계를 알지 못하며 가족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두 가족의 경우

는 가족 수행이 역기능적이다.

가족 내 외적인 압력에 대응하는 가족체계의 능력이 가족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가족체계이론가들의 관심영역이었다. 그러나 초기 가족치료 이론가들은 변화보다는 현상유지의 관점에서 가족형태의 안정적 속성을 강조하였다. 즉 항상성을 중심 개념으로 보아 가족체계는 계속되는 내 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자체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반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응성 개념은 응집성 개념과 더불어 가족 기능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족응집성에 관한 선행연구 중 김선숙(2005)은 취학 전 아동의 인구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행동 및 행동문제를 살펴보고, 가족의 응집력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행동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낮은 가족 응집력은 아동의 사회정서 적응행동과 행동문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적응 및 행동문제의 원인을 모두가족 응집력의 문제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취학 전 아동이 일차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 가정임을 고려해 볼 때 서로 친밀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는 가족 관계는 아동에게 불안한 가정 분위기를 느끼게 하여 결과적으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긍정적인 사회적 적응을 도모하고, 적응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아동이 속한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접근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임성우(2005)는 학생들이 느끼는 가족에 대한 응집 정도를 측정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있어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상담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 자신이 가족들과 적절한 수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연결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족 집단과 많이 분리되어 있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극단적인 집단은 연결 집단보다 적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제4절 과시소비 행동

과시소비는 지위상품을 고가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욕망 때문에 이루어지는 소비행동이다.

백경미(1995)와 송은경(1997)의 연구에서 과시소비는 제품, 서비스의 상징성을 통해 지위를 획득하거나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에게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박은아(1994)·이미용(1991)은 지위를 나타내기 위한 부의 전시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과시소비가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김태은(1997)에 의하면 과시소비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모든 소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과거 원시사회에서 그 집단의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혹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힘이나 용맹성 또는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나 신체장식도 넓은 의미의 과시소비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편세린(1997)은 과시소비를 기본적으로 부를 통한 지위 상징성이라는 Veblen의 과시소비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상징성을 통해서 신분상승, 지위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며, 이남숙(1999)은 지위의 획득이나 유지, 신분상승을 위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과시소비는 라이벤스탁인(Leibenstein)이 소비의 외부효과라고 본 베블렌효과(Veblen effect), 밴드웨건효과(band wagon effect), 스놉효과(Snob effect) 등을 통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베블렌효과(band wagon effect)는 무조건 비싼 상품을 사려는 소비자성향이고, 밴드웨건효과(band wagon effect)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상품을 사려는 소비자성향이다. 스놉효과(Snob effect)는 품질이 뛰어나고 희소성을 지닌 것으로 남들과 다른 것을 사려는 소비자성향을 의미한다.

순수한 의미의 과시소비는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분이 불확실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위를 보상하려는 보상소비, 체면을 위한 소비, 허세에서 나오는 소비를 통하여 자신을 과시하려는 과시소비가 문제가 되고 있다.

현대 소비문화에서는 호사품(luxury goods)이 신분이나 계층의 상징이 된다. 베블렌은 소비자들이 호사품을 찾는 동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 두 가지 동기는 값이 비쌀수록 호사품의 가치를 크게 만드는 요인인わり된다.

과시소비에 관한 선행연구 중 유주현(2008)은 과소비현상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못한 채 일반적인 소비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래의 성인 소비자로서 올바른 경제의식과 합리적 소비습관을 배양하는 것은 중요하며 또한 학교 경제교육을 통해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현실적인 경제교육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기에 학교교육으로써 경제교육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연구결과 중학생의 종합적 경제의식과 소비행태를 살펴보면 경제의식의 경우 창조의식과 절약의식이 균면의식과 공동체 의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행태에서는 알뜰구매가 모방구매, 과시구매, 충동구매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 변인에 따른 경제의식과 소비행태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충동구매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계열에 따른 소비행태에서는 계열과 상관없이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셋째,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경제의식과 소비행태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의 월 평균 수입에 따른 경제의식에서는 월평균 수입이 높은 가정의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월 200만원 미만 가정의 학생들은 공동체 의식이 낮게 조사되었으며 소비 행태에서는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과시구매와 모방구매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5절 자원 절약행동

자원 절약행동은 환경에 이로운 혹은 환경에 조화되는 소비행동을 말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단계의 각 시점 별로 자원 범주 영역에서 자원 소비의 최소화, 에너지 소비의 최소화, 생태계 범주 영역에서 생태 영향의 최소화 등을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인 여유와 함께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고갈되어가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자원 절약행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자원 절약행동이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남숙(1994)은 자원 절약행동에 대하여 환경 관리 행동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이는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정 내의 재화와 용역의 구매 및 사용, 처분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는 행동으로 설명하였다. 주로 에너지 소비 절약행동, 자원 재활용 행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

이지영(2001) 역시 자원 절약과 관련하여 관리 행동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족원의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한 가정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가정은 가족원이라는 인적 근접환경과 의식주의 물적 근접환경, 광역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배분 및 조작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자원 절약행동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승란(2002)은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초등학교 아동들의 소비와 절약 생활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소비행동 지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교육이 생활교과인 실과 교과에서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소비 생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아동들은 과시를 위한 구매, 충동 구매, 계획적인 구매, 알뜰 구매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잘 하고 있었으며 5학년 아동들이 6학년보다 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물자절약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 초등학교 아동들의 물자절약 습관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 물자절약을 잘 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영(2012)은 도시취업 주부의 자원절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절약 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 변인들의 고찰 및 도시취업 주부의 자원절약 의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자원절약 의식과 행동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도시취업 주부의 자원절약 행동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토대로 녹색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생활 주기가 확대기나 축소기일 경우에 자원절약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취업 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원절약 행동을 살펴본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생활주기가 확대기나 축소기일 경우, 자원절약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3장 연구방법 및 절차

### 제1절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과시소비행동과 자원절약행동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광주지역의 3개 남녀공학학교에서 2학년 270명을 비체계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 그 중 부실한 설문지 23부를 제외한 247명의 설문결과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제2절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중학생의 과시소비 및 자원절약과 관련성이 있는 변인을 선정하였고,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 및 문제에 맞춰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내용 구성은 총 66문항이다.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 인구학적 변인은 학생 개인 특성 변인과 가족 특성 변인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개인 특성 변인은 성별, 용돈액을 선정하였고, 가족 특성 변인은 부모님의 학력과 직업, 맞벌이 여부, 월평균 가계 소득, 주관적 생활수준, 가족응집력을 선정하였다. 조사도구 가운데 가족응집력은 가족 사이의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관계에 있어 서로 정신적으로 지지하며 심리적으로 결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응집력은 강태임(1999), 김선숙(2005), 임성우(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총 7문항을 구성하였고, 각 문항은 5점 Likert 방

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중학생의 소비생활 및 자원 절약행동은 가정의 환경 및 부모님의 영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항 설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환경을 변인으로 과시소비생활과 자원절약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설정하였다.

## 2) 소비생활교육

소비생활교육 조사도구는 일반적인 소비생활 교육 경험, 부모로부터의 소비생활 교육 경험, 소비자사회화, 소비생활 교육 장소, 효과적인 소비생활 교수학습 방법을 선정하였다. 조사도구 가운데 소비자사회화란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 기능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소비자사회화 변인은 김진아(1996), 권미화(2000), 정지영(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총 9문항을 구성하였고, 각 문항은 5점 Likert 방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3) 과시소비행동

과시소비행동은 편세린(1997), 이영희(2000)의 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방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역점 문항을 포함시켰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시소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 자원절약행동

자원절약행동은 이춘희(1995), 정혜경(1999), 유경아(2007)의 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방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절약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제3절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SPSS(ver. 21)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소비생활교육 관련 특성, 과시소비 및 자원절약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소비생활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과시소비생활과 자원절약행동의 차이, 과시소비행동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t-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 제4장 연구결과

### 제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개인 관련 특성의 일반적 경향

연구대상자의 개인 관련 특성은 <표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131명(53.0%)으로 ‘여학생’ 116명(47.0%)보다 많았고, 용돈은 ‘5만원 미만’이 149명(60.3%)으로 가장 많았으며,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71명(28.7%), ‘10만원 이상’ 27명(10.9%) 순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개인 관련 특성

	변수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31	53.0
	여성	116	47.0
용돈	5만원 미만	149	60.3
	5만원-10만원 미만	71	28.7
	10만원 이상	27	10.9

## 2. 가족 관련 특성의 일반적 경향

연구대상자의 가족 관련 특성은 <표 2>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 학력은 ‘전문대출 이상’이 168명(68.0%), ‘고졸 이하’가 79명(32.0%)이었고, 모 학력은 ‘전문대출 이상’이 166명(67.2%), ‘고졸 이하’가 81명(32.8%)으로 부모 의 학력은 전문대출 이상이 과반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직업은 ‘사무종사자’ 78명(31.6%), ‘전문관리종사자’가 72명(29.1%)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판 매종사자’ 61명(24.7%), ‘단순노무종사자’ 24명(9.7%), ‘농축어업종사자’ 12명 (4.9%) 순이었고, 모직업은 ‘전업주부’가 73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 스판매종사자’ 63명(25.6%), ‘사무종사자’ 51명(20.7%), ‘전문관리종사자’ 41명 (16.7%), ‘단순노무종사자’ 13명(5.3%), ‘농축어업종사자’ 5명(2.0%) 순이었다. ‘맞벌이 가계’가 160명(64.8%)으로 ‘외벌이 가계’ 87명(35.2%)보다 많았고, 월 평균 가계소득은 ‘200만원-400만원 미만’이 105명(42.5%)으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600만원 미만’ 69명(27.9%), ‘600만원 이상’ 55명(22.3%), ‘200만원 미 만’ 18명(7.3%) 순이었으며, 주관적으로 인지한 생활수준은 ‘중류층’이 182명 (73.7%)으로 가장 많았고, ‘상류층’ 56명(22.7%), ‘하류층’ 9명(3.6%) 순이었다. 가족응집성은 ‘보통 집단’이 109명(44.1%)으로 가장 많았고, ‘낮은 집단’ 67명 (27.1%), ‘높은 집단’ 71명(28.7%) 순이었고, 5점 만점에 3.60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lt;표 2&gt; 연구대상자의 가족 관련 특성

	변수	빈도	퍼센트
부학력	고졸 이하	79	32.0
	전문대졸 이상	168	68.0
모학력	고졸 이하	81	32.8
	전문대졸 이상	166	67.2
부직업	전문관리종사자	72	29.1
	사무종사자	78	31.6
	서비스판매종사자	61	24.7
	농축어업종사자	12	4.9
	단순노무종사자	24	9.7
모직업	전문관리종사자	41	16.7
	사무종사자	51	20.7
	서비스판매종사자	63	25.6
	농축어업종사자	5	2.0
	단순노무종사자	13	5.3
	전업주부	73	29.7
맞벌이	맞벌이	160	64.8
	외벌이	87	35.2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18	7.3
	200만원~400만원 미만	105	42.5
	400만원~600만원 미만	69	27.9
	600만원 이상	55	22.3
생활수준	상류층	56	22.7
	중류층	182	73.7
	하류층	9	3.6
가족 옹집성 <sup>1)</sup>	낮은 집단	67	27.1
	보통 집단	109	44.1
	높은 집단	71	28.7
평균(표준편차)		3.60(0.72)	

<sup>1)</sup> 평균-1/2(낮은 집단)≤평균±1/2(보통 집단)≤평균+1/2(높은 집단)

※ 결측값에 의해 변수별 전체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 3. 소비생활교육 관련 특성의 일반적 경향

소비생활교육 관련 특성은 <표 3>과 같다. 먼저 소비생활교육을 받은 경험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200명(81.0%),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47명(19.0%)이었고, 부모님이 소비생활교육을 실시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주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135명(67.5%), ‘자주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65명(32.5%)이었다. 소비생활교육을 받은 장소를 살펴보면 ‘학교’라고 응답한 학생이 131명(65.5%)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가정’ 57명(28.5%), ‘대중매체’ 8명(4.0%), ‘기타’ 4명(2.0%) 순이었다. 부모님이 소비생활교육을 ‘자주 실시’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67.5%이나 소비생활교육을 받은 장소는 ‘학교’가 65.5%로 ‘가정’보다 높게 나와 있다. 이는 가정에서도 소비생활교육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효과적인 소비생활교육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유인물 및 PPT 등을 이용한 강의식 수업’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74명(37.0%)으로 가장 많았고, ‘영상매체를 이용한 토론식 수업’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6명(33.0%), ‘교과서 위주의 강의식 수업’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7명(23.5%), ‘기타’라고 응답한 학생이 13명(6.5%)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사회화는 ‘보통 집단’이 98명(39.7%), ‘높은 집단’이 81명(32.8%), ‘낮은 집단’이 68명(27.5%)이었으며, 5점 만점에 3.33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3&gt; 연구대상자의 소비생활교육 관련 특성

	변수	빈도	퍼센트
소비생활교육	있다	200	81.0
경험 여부	없다	47	19.0
부모의	자주한다	135	67.5
소비 생활교육	자주하지 않는다	65	32.5
	학교	131	65.5
소비생활교육	가정	57	28.5
장소	대중매체	8	4.0
	기타	4	2.0
	교과서 위주의 강의식 수업	47	23.5
효과적인 소비생활교육 교수학습 방법	유인물 및 PPT 등을 이용한 강의식 수업	74	37.0
	영상매체를 이용한 토론식 수업	66	33.0
	기타	13	6.5
	낮은 집단	68	27.5
소비자사회화 <sup>1)</sup>	보통 집단	98	39.7
	높은 집단	81	32.8
	평균(표준편차)	3.33(0.76)	

<sup>1)</sup> 평균-1/2(낮은 집단)≤평균±1/2(보통 집단)≤평균+1/2(높은 집단)

연구대상자의 과시소비행동 및 자원절약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표 4>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시소비행동은 5점 만점에 2.78점으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절약행동은 5점 만점에 3.27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4&gt; 과시소비 및 자원절약행동의 일반적 경향

변수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과시소비행동	247	1.04	4.83	2.78	0.63
자원절약행동	247	2.44	5.00	3.27	0.39

변수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	----	-----	-----	----	------

## 제2절 연구대상자의 주요변인에 따른 과시소비성향

### 1. 개인 관련 특성에 따른 과시소비행동

개인 관련 특성에 따른 과시소비행동은 <표 5>와 같다. 개인 관련 특성에 따른 과시소비행동을 살펴보면 성별( $t=2.39$ ,  $p<.05$ )과 학생의 용돈액( $F=3.46$ ,  $p<.05$ )에 따른 과시소비‘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과시소비행동 평균 점수는 2.87점, ‘여학생’의 과시소비행동 평균 점수는 2.68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과시소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용돈이 ‘10만원 이상’인 학생의 과시소비행동 평균 점수는 3.07점, 용돈이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인 학생의 과시소비행동 평균 점수는 2.78점, 용돈이 ‘5만원 미만’인 학생의 과시소비행동 평균 점수는 2.73점으로 용돈을 10만원 이상 받는 학생 집단이 용돈을 10만원 미만 받는 학생 집단에 비해 과시소비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용돈액과 과시소비성향에 대해서는 편세린(1997), 김혜인·이승신(2003), 안영희·박명숙(2000) 등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결과에서도 용돈액이 많을수록 과시소시성향을 보인다는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성별에 따른 과시소비성향에 대해서도 편세린(1997), 이영희(2000), 김지영(1998), 김문화(1996)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과시소비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개인 관련 특성에 따른 과시소비행동

변수	과시소비행동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2.87	0.66
	여성	2.68	0.57

변수	과시소비행동	
	평균	표준편차
t	2.39*	
용돈	5만원 미만	2.73a
	5만원-10만원 미만	2.78a
	10만원 이상	3.07b
F	3.46*	

\*p<.05, \*\*p<.01, \*\*\*p<.001

a, b, c는 Duncan의 방법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임

## 2. 가족 관련 특성에 따른 과시소비행동

가족 관련 특성에 따른 과시소비행동은 <표 6>과 같다. 가족 관련 특성에 따른 과시소비행동을 살펴보면 부모직업, 가계소득, 생활수준에 따른 과시소비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부학력( $t=2.30$ ,  $p<.05$ ), 모학력( $t=2.29$ ,  $p<.05$ ), 맞벌이여부( $t=2.10$ ,  $p<.05$ ), 가족응집성( $t=3.03$ ,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학력이 ‘고졸 이하’인 학생의 과시소비행동 평균 점수는 2.91점, 부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학생의 과시소비행동 평균 점수는 2.72점이었고, 모학력이 ‘고졸 이하’인 학생의 과시소비행동 점수는 2.91점, 모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학생의 과시소비행동 점수는 2.72점으로 부모학력이 높은 학생이 과시소비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진희(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석봉화(1997), 이영희(2000), 김혜인 · 이승신(2003)의 연구에서는 브랜드 지향소비에서 모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과시소비 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나순옥(2005)의 연구에서는 모학력이 전문대졸이상인 집단이 고졸이하의 집단보다 양적인 과시소비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맞벌이 가계’ 학생의 과시소비행동 평균 점수는 2.84점, ‘외벌이 가계’ 학생의 과시소비행동 평균 점수는 2.67점으로 맞벌이 가계 학생이 과시소비행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홍진희(2007), 서정희 · 석봉화(1998), 김혜인 · 이승신(2003)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응집성이 ‘보통 집단’ 학생의 과시소비행동 평균 점수는 2.89점으로 가장 높고, 가족응집성이 ‘높은 집단’ 학생의 과시소비행동 평균 점수는 2.71점, 가족응집성이 ‘낮은 집단’ 학생의 과시소비행동 평균 점수는 2.69점으로 가족응집성이 ‘높은 집단’에 비해 ‘보통 집단’과 ‘낮은 집단’ 학생이 과시소비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전미영(2011)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표 6> 가족 관련 특성에 따른 과시소비행동

	변수	과시소비행동	
		평균	표준편차
부학력	고졸 이하	2.91	0.61
	전문대졸 이상	2.72	0.63
		t	2.30*
모학력	고졸 이하	2.91	0.65
	전문대졸 이상	2.72	0.61
		t	2.29*
부직업	전문관리종사자	2.78	0.70
	사무종사자	2.77	0.57
	서비스판매종사자	2.78	0.67
	농축어업종사자	2.99	0.54
	단순노무종사자	2.74	0.57
	F	0.35	
모직업	전문관리종사자	2.87	0.64
	사무종사자	2.84	0.59
	서비스판매종사자	2.76	0.62
	농축어업종사자	2.78	0.62
	단순노무종사자	2.81	0.53

변수	과시소비행동	
	평균	표준편차
전업주부	2.70	0.68
F		0.51
맞벌이	2.84	0.59
맞벌이 여부	외벌이	2.67
t		2.10*
200만원 미만	2.59	0.89
200만원-400만원 미만	2.83	0.59
가계소득	400만원-600만원 미만	2.75
600만원 이상	2.80	0.57
F		0.86
생활수준	상류층	2.74
중류층	2.77	0.60
하류층	3.25	0.77
F		2.68
가족	낮은 집단	2.69a
응집성	보통 집단	2.89b
높은 집단	2.71ab	0.69
F		3.03*

\*p<.05, \*\*p<.01, \*\*\*p<.001

a, b, c는 Duncan의 방법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임

### 3. 소비생활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과시소비행동

소비생활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과시소비행동은 <표 7>과 같다. 소비생활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과시소비행동을 살펴보면 소비생활교육 경험 여부, 부모의 소비생활 교육, 소비자사회화 수준, 소비생활교육 장소, 효과적인 소비생활교육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과시소비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t;표 7&gt; 소비생활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과시소비행동

변수	과시소비행동		
	평균	표준편차	
소비생활교육 경험 여부	있다	2.79	0.63
	없다	2.75	0.62
	t	0.37	
부모의 소비생활교육	자주한다	2.83	0.61
	자주하지 않는다	2.70	0.68
	t	1.40	
소비생활교육 장소	학교	2.84	0.64
	가정	2.70	0.58
	대중매체	2.52	0.92
	기타	2.94	0.47
효과적인 소비생활교육 교수학습 방법	F	1.30	
	교과서 위주의 강의식 수업	2.71	0.59
	유인물 및 PPT 등을 이용한 강의식 수업	2.86	0.71
	영상매체를 이용한 토론식 수업	2.75	0.57
	기타	2.91	0.63
소비자 사회화	F	0.79	
	낮은 집단	2.75	0.65
	보통 집단	2.80	0.54
	높은 집단	2.79	0.71
	F	0.15	

\* p&lt;.05, \*\* p&lt;.01, \*\*\* p&lt;.001

a, b, c는 Duncan의 방법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임

## 제3절 연구대상자의 주요변인에 따른 자원절약행동

### 1. 개인 관련 특성에 따른 자원절약행동

개인 관련 특성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은 <표 8>과 같다. 개인 관련 특성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을 살펴보면 용돈액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성별( $t=-2.51$ ,  $p<.05$ )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의 자원절약행동 평균 점수는 3.33점, ‘남학생’의 자원절약행동 평균 점수는 3.21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원절약행동을 더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강희선(1994)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원절약행동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용돈액과 자원절약행동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미영(2012)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용돈액수가 적은 집단이 용돈이 많은 집단에 비해 자원절약 행동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세린(1997)의 용돈의 액수가 적을수록 자원절약행동 수준이 높다는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는 자원절약행동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용돈액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8> 개인 관련 특성에 따른 자원절약행동

	변수	자원절약행동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3.21	0.37
	여성	3.33	0.41
	t	-2.51*	
용돈	5만원 미만	3.25	0.42
	5만원-10만원 미만	3.27	0.33
	10만원 이상	3.34	0.40
		F	0.61

\* $p<.05$ , \*\* $p<.01$ , \*\*\* $p<.001$

a, b, c는 Duncan의 방법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임

## 2. 가족 관련 특성에 따른 자원절약행동

가족 관련 특성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은 <표 9>과 같다. 가족 관련 특성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을 살펴보면 모학력, 부모직업, 맞벌이 여부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부학력( $t=2.12$ ,  $p<.05$ )과 가계소득( $F=4.42$ ,  $p<.01$ ), 생활수준( $F=3.26$ ,  $p<.05$ ), 가족응집성( $F=3.41$ ,  $p<.05$ )에 따라 자원절약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부학력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을 살펴보면 부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학생의 자원절약 행동 평균 점수는 3.30점, 부학력이 ‘고졸 이하’인 학생의 자원절약행동 평균 점수는 3.19점으로 부학력이 높은 집단의 학생이 자원절약행동을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김부련(1986)에서는 모학력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졸 이상의 모 학력을 지닌 자녀에게서 물자절약 태도가 가장 높게 보였다. 다음으로 가계소득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을 살펴보면 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학생의 자원절약행동 평균 점수는 3.47점, 가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학생의 자원절약행동 평균 점수는 3.35점, 가계소득이 ‘400만원-600만원 미만’인 학생의 자원절약행동 평균 점수는 3.23점, 가계소득이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인 학생의 자원절약행동 평균 점수는 3.18점으로 가계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이 자원절약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 가계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이 자원절약행동을 그 다음으로 많이 하였으며, 가계소득이 중간 집단이 자원절약행동을 가장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부련(1986)의 연구 결과에서도 역시 가계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자원절약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족이 선택 할 수밖에 없는 최선의 행동이라고 보여진다. 생활수준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을 살펴보면 ‘상류층’ 학생의 자원절약행동 평균 점수는 3.37점, ‘중류층’ 학생의 자원절약행동 평균 점수는 3.25점, ‘하류층’ 학생의 자원절약행동 평균 점수는 3.07점으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원절약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자원절약행동을 보인 반면, 생활

수준 측면에서는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원절약행동을 보였다. 이는 설문 조사 시 가계소득은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였으나, 생활수준측면은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가족응집성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을 살펴보면 가족응집성이 ‘높은 집단’ 학생의 자원절약행동 평균 점수는 3.34점, 가족응집성이 ‘보통 집단’인 학생의 자원절약행동 평균 점수는 3.28점, 가족응집성이 ‘낮은 집단’ 학생의 자원절약행동 평균 점수는 3.17점으로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자원절약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영(2011)의 연구에서도 가족응집력이 높을수록 자원절약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김경미(2005), 유경아(2007)연구에서 대화를 지향하는 정도가 높은 가족일수록 환경 친화적 소비의식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론과도 일맥상통하다. 가족응집력이 높을 때 과시소비성향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일차적 사회화 집단인 가정에서의 가족관계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9> 가족 관련 특성에 따른 자원절약행동

	변수	자원절약행동	
		평균	표준편차
부 학력	고졸 이하	3.19	0.40
	전문대졸 이상	3.30	0.40
t		-2.12*	
모학력	고졸 이하	3.21	0.36
	전문대졸 이상	3.30	0.40
t		-1.75	
부직업	전문관리종사자	3.27	0.44
	사무종사자	3.27	0.37
	서비스판매종사자	3.27	0.39
	농축어업종사자	3.23	0.28
	단순노무종사자	3.27	0.36
F		0.04	
모직업	전문관리종사자	3.33	0.49
	사무종사자	3.22	0.39
	서비스판매종사자	3.26	0.35

변수	자원절약행동	
	평균	표준편차
농축어업종사자	3.18	0.29
단순노무종사자	3.24	0.25
전업주부	3.30	0.38
F	0.58	
맞벌이 여부	맞벌이	3.25
	외벌이	3.31
t		-1.12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3.47b
	200만원-400만원 미만	3.18a
	400만원-600만원 미만	3.23a
	600만원 이상	3.35ab
F	4.42**	
생활수준	상류층	3.37b
	중류층	3.25ab
	하류층	3.07a
F	3.26*	
가족	낮은 집단	3.17a
	보통 집단	3.28a
응집성	높은 집단	3.34b
F	3.41*	

\* p<.05, \*\* p<.01, \*\*\* p<.001

a, b, c는 Duncan의 방법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임

### 3. 소비생활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과시소비행동

소비생활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은 <표 10>과 같다. 소비생활 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을 살펴보면 소비생활교육 경험 여부, 소비생활교육 장소, 효과적인 소비생활교육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자원절약 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부모의 소비생활 교육 ( $F=3.55$ ,  $p<.001$ )과 소비자사회화 수준( $F=14.77$ ,  $p<.001$ )에 따라 자원절약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모가 소비생활 교육을 ‘자주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자원절약행동 평균 점수는 3.33점, 부모가 소비생활교육을

‘자주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의 자원절약행동 평균 점수는 3.13점으로 부모가 소비생활교육을 자주 하는 집단일수록 자원절약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미화(2000)연구에서도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소비행동 전체의 합리성 수준이 높았고, 하위영역인 구매행동, 사용행동이 더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소비자사회화 수준이 ‘높은 집단’ 학생의 자원절약행동 평균 점수는 3.44점, 소비자사회화 수준이 ‘보통 집단’ 학생의 자원절약행동 평균 점수는 3.24점, 소비자사회화 수준이 ‘낮은 집단’ 학생의 자원절약행동 평균 점수는 3.11점으로 소비자사회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절약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경화(2002)는 소비자 사회화는 일반적으로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데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전달되는 것이 보편적이며, 가족은 소비자사회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녀들은 그들 부모의 소비자행동을 모방하면서 소비행태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lt;표 10&gt; 소비생활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자원절약행동

변수	자원절약행동		
	평균	표준편차	
소비생활교육 경험 여부	있다	3.27	0.39
	없다	3.27	0.40
	t	0.01	
부모의 소비생활교육	자주한다	3.33	0.38
	자주하지 않는다	3.13	0.37
	t	3.55***	
소비생활교육 장소	학교	3.25	0.37
	가정	3.32	0.40
	대중매체	3.27	0.56
	기타	3.29	0.60
효과적인 소비생활교육 교수학습 방법	F	0.45	
	교과서 위주의 강의식 수업	3.24	0.30
소비자 사회화	유인물 및 PPT 등을 이용한 강의식 수업	3.33	0.43
	영상매체를 이용한 토론식 수업	3.23	0.41
	기타	3.20	0.31
	F	1.15	
소비자 사회화	낮은 집단	3.11a	0.40
	보통 집단	3.24b	0.33
	높은 집단	3.44c	0.39
	F	14.77***	

\* p&lt;.05, \*\* p&lt;.01, \*\*\* p&lt;.001

a, b, c는 Duncan의 방법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임

## 제4절 연구대상자의 과시소비행동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의 차이

과시소비행동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의 차이는 <표 11>과 같으며, 과시소비 행동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3.80$ ,  $p<.05$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시소비행동이 ‘낮은 집단’인 학생의 자원절약 행동 평균 점수는 3.37점, 과시소비행동이 ‘보통 집단’인 학생의 자원절약행동 평균 점수는 3.24점, 과시소비행동이 ‘높은 집단’인 학생의 자원절약행동 평균 점수는 3.20점으로 과시소비행동이 낮은 집단 학생이 보통이나 높은 집단 학생에 비해 자원절약행동을 보다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경우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생각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김기옥 외(2001)은 결국 한국 사회의 체면 중시가 고가의 물건을 누가 샀다고 알려지는 즉시 경쟁적으로 따라 사게 되는 경쟁소비, 모방소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과시소비와 자원절약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지만 과시소비 지향성은 낭비적 소비를 불러일으켜 자원을 낭비하게 되므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과시소비 성향이 낮을수록 자원절약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1> 과시소비행동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의 차이

변수	자원절약행동	
	평균	표준편차
과시소비 행동 <sup>1)</sup>	낮은 집단	3.37b
	보통 집단	3.24a
	높은 집단	3.20a
$F$		3.80*

<sup>1)</sup> 평균-1/2(낮은 집단)≤평균±1/2(보통 집단)≤평균+1/2(높은 집단)

\* $p<.05$ , \*\* $p<.01$ , \*\*\* $p<.001$

a, b, c는 Duncan의 방법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임

## 제5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과시소비행동과 자원절약행동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설문내용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 및 문제에 맞춰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고, 광주지역의 3개 학교에서 2학년 270명을 비체계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70부를 회수하였고 부실하게 기재된 23부를 제외하고 247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SPSS(ver. 21)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소비생활교육 관련 특성, 과시소비 및 자원절약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소비생활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과시소비생활과 자원절약행동의 차이, 과시소비행동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t-test)과 일원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개인 관련 특성 중에서는 성별과 용돈, 가족 관련 특성 중 부학력, 모학력, 맞벌이 여부, 가족 응집성에 따라 과시소비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가족 관련 특성 중, 부직업, 모직업, 가계소득, 생활수준에 따라 과시소비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소비생활교육 관련 특성 중, 소비생활 교육 경험여부, 부모의 소비생활 교육, 소비생활 교육 장소, 효과적인 소비생활교육 교수학습 방법, 소비자 사회화에 따라 과시소비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개인 관련 특성 중 성별에 따라서는 자원절약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용돈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가족 관련 특성 중, 부학력, 가계소득, 생활수준, 가족옹집력에 따라 자원 절약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되었으나, 모학력, 부직업, 모직업,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소비생활교육 관련 특성 중, 부모의 소비생활교육, 소비자 사회화에 따라 자원절약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소비생활교육 경험 여부, 소비생활교육 장소, 효과적인 소비생활교육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과시소비 행동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과시소비 행동에 따라 자원절약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소비자의 과시소비성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과시소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용돈을 10만원 이상 받는 학생 집단이 용돈을 10만원 미만 받는 학생 집단에 비해 과시소비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성인소비자들 중 부유한 계층이 소비를 통해 자기지위를 과시하고자하는 것처럼 청소년소비자들도 효용보다는 준거집단의 영향을 받아 과시소비성향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과시소비성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용돈의 크기가 요구됨을 알 수 있으며 더불어 청소년기 용돈소비행동 경험은 미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소비생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청소년 소비자의 자원절약태도는 과시소비 행동이 낮을수록, 부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이 가족옹집성이 높을수록, 소비자사회화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사회화를 경험하고, 자녀의 소비행동에 대해 부모나 가족이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자원절약적 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바람직한 소비행동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부모 자신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원절약적 행동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시소비성향과 자원절약행동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올바른 소비자교육을 통해 과시소비성향을 줄여 자원절약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생활교육 관련 특성 중 부모의 소비생활교육과 소비자 사회화에 따라 자원 절약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정에서의 부모의 소비생활교육은 일상생활에서 부모의 행동을 모방함과 더불어 실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바람직한 소비자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소비자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단, 효과적인 소비생활교육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되었는데, 이는 학교교육에서 이러한 교육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7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교과의 소비자교육의 내용이 축소되어 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으며, 학교에서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소비행동 및 자원 절약에 대해 수업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과시간 이외 창체 시간을 활용하여 소비자교육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비디오자료, 참고 교재,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전문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일선 교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교소비자교육을 위해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광주지역 3개의 남녀공학학교에서 2학년 247명을 비체계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지역, 환경, 성별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이를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과 지역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옷이나 신발, 학용품 등에 한정하여 과시소비성향을 측정하였으나, 이제는 청소년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영역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품목을 포함한 척도를 사용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과시소비를 부추기는 매체들도 단순히 잡지나 TV광고뿐만 아니라 게임사이트, 유튜브, 카카오톡, 빙그레, 인스타그램 등으로 확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과시소비 측면이 미미하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전문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사례 연구나 자문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타당성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지만, 최근 초등학생들에게서도 과시소비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속적인 소비행태를 분석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행동들을 균절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최순종(2009). 한국청소년의 소비패턴과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독일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6(4), 235-255.
- 강태임(1999). 청소년의 경제위기감에 따른 과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안성산업대학교 논문집, 31, 231-242.
- 강희선(1994). 청소년 소비자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권대훈(2009). 교육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가령(2017). 청소년의 윤리적 소비의식과 의복소비행동: 경북지역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선숙(2005). 가족응집력과 취학 전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행동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김성이, 조학래, 노충래.(2004). 청소년복지학. 서울:집문당.
- 김일환.(2009). 성년 20세→19세 하향…성년후견제 도입. 로이슈(2009.9.18.)
- 노남숙(1994). 주부의 환경관리지식 인지도와 환경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 의, 식, 주, 경영, 구매, 가족 관리행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민정(2009). 사이버 여가활동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소비행동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승란(2002). 초등학생의 소비실태 및 소비행동 지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 신지숙(200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소비성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오경화(2002). 유아의 소비행동 실태와 부모의 소비행동지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유경아(2008). 고등학생의 환경친화적 소비의식 및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유주현(2008). 경제의식과 소비행태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기춘(1985). 소비자능력개발을 위한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기춘(1999). 소비자 교육의 이론과 실제. 경기: 교문사.
- 이미용(1991). 과시소비 영향요인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영희(2000). 청소년소비자의 과시소비성향에 관한 관련변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인정,최해경.(1999).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나남출판
- 임경희(1997). 청소년소비자의 강박적 구매성향 및 비행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정혜경(1999).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소비행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조윤영(2012). 도시취업 주부의 자원절약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편세린(1997). 청소년의 소비지향적 태도와 과시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lt;부록&gt;

## 설문지

### 중학생들의 과시소비생활 및 자원절약행동에 관한 연구

####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중학생의 과시소비생활과 자원절약행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인 학생입니다. 본 조사에서 귀하가 응답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에 응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2월

교육대학원

연 구 자 : 안 수 정

지도교수 : 양 남 희

#### 1. 학생과 부모님 사이에 소비자 사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부모님은 쇼핑할 때 나에게 구입 요령을 알려주신다.	1	2	3	4	5
1-2	부모님이 나에게 용돈기입장 적는 요령을 알려주신다.	1	2	3	4	5
1-3	부모님이 나에게 자원 절약 및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1	2	3	4	5
1-4	부모님은 내가 물건을 아껴 쓰고 용돈을 계획적으로 쓰는 것을 칭찬해주신다.	1	2	3	4	5

번호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부모님은 내가 물건을 사기 전에 충분히 알아본 후 사도록 지도해 주신다.	1	2	3	4	5
1-6	내가 과소비를 하거나 쓸데없는 물건을 살 때 부모님은 용돈을 줄인다.	1	2	3	4	5
1-7	나는 평소 물건의 품질이나 상표 가격 등에 대하여 부모님과 이야기 나눈다.	1	2	3	4	5
1-8	나는 신문이나 TV에서 환경문제나 소비자 문제를 본 후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눈다.	1	2	3	4	5
1-9	나는 용돈관리나 저축하는 방법에 대하여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눈다.	1	2	3	4	5

2. 귀하의 가족응집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우리 가족은 가족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2-2	우리 가족은 서로의 친한 친구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1	2	3	4	5
2-3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위로를 해준다.	1	2	3	4	5
2-4	대청소 등 집안일은 가족이 함께 도와서 한다.	1	2	3	4	5
2-5	명절 등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 다 같이 도와서 일한다.	1	2	3	4	5
2-6	우리 가족끼리 여가를 즐기는 일이 많고, 모두 좋아한다.	1	2	3	4	5
2-7	부모님은 집안일에 대하여 나에게도 상의한다.	1	2	3	4	5

**3. 귀하의 소비생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유명 브랜드를 좋아한다.	1	2	3	4	5
3-2	국산품 보다는 외제품을 더 선호한다.	1	2	3	4	5
3-3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름이 있는 제품이 좋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4	최신유행을 따르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3-5	선물을 살 때 될 수 있는 대로 유명 상표를 선택한다.	1	2	3	4	5
3-6	상품에는 외제 이름이 붙어야 더 세련되어 보인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7	상품의 이름이나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1	2	3	4	5
3-8	구매를 결정할 때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1	2	3	4	5
3-9	유행하는 제품을 알아보려고 잡지나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는 편이다.	1	2	3	4	5
3-10	싼 값을 옷을 입으면 타인이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1	2	3	4	5
3-11	친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사고 싶어 한다.	1	2	3	4	5
3-12	상품 구입 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다.	1	2	3	4	5
3-13	같은 가격이라면 유명한 브랜드를 사고 싶다.	1	2	3	4	5
3-14	사람들이 가짜 유명상표의 옷을 입는 이유는 그 브랜드가 부유함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1	2	3	4	5
3-15	자신의 개성을 강조하거나 타인보다 우월해 보일 수 있다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한다.	1	2	3	4	5
3-16	좋은 상표의 옷에는 상표나 심벌 마크가 잘 보이는 것이 좋다.	1	2	3	4	5
3-17	나는 유명 브랜드를 무조건 구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번호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8	옷을 선택할 때 유행하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편이다.	1	2	3	4	5
3-19	새롭게 유행하는 옷은 남보다 먼저 구입해서 입고 싶다.	1	2	3	4	5
3-20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유행이 지난 스타일의 옷은 입고 싶지 않다.	1	2	3	4	5
3-21	옷이나 가방을 살 때 친구들의 반응을 의식하는 편이다.	1	2	3	4	5
3-22	친구들이 알아주는 상품을 좋아하는 편이다.	1	2	3	4	5
3-23	비슷한 가격이라도 수입제품이 국내제품보다 더 좋다고 느낀다.	1	2	3	4	5
3-24	가급적이면 외국 제품의 신발을 사고 싶다.	1	2	3	4	5

**4. 귀하의 자원절약행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나는 학용품이나 상품을 구매할 때 비닐봉지나 쇼핑백은 받아오지 않는다.	1	2	3	4	5
4-2	나는 학용품이나 상품 구매할 때 발생할 쓰레기의 양을 생각하고 구매한다.	1	2	3	4	5
4-3	나는 학용품이나 상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만큼만 구매한다.	1	2	3	4	5
4-4	나는 내용물만 다시 채워서 쓸 수 있는 볼펜이나 파일노트 등은 내용물만 구입해서 사용한다.	1	2	3	4	5
4-5	나는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기보다는 자전거나 걸어서 다닌다.	1	2	3	4	5
4-6	나는 공공장소의 전기, 수돗물, 휴지는 아껴서 사용한다.	1	2	3	4	5

번호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7	나는 수돗물 사용 후 물이 흐르지 않도록 꼭 잠근다.	1	2	3	4	5
4-8	나는 나무젓가락이나 종이컵 등 일회용품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1	2	3	4	5
4-9	나는 학용품은 못쓰게 될 때 까지 사용한 후 버린다.	1	2	3	4	5
4-10	나는 쓰다 남은 공책이나 이면지는 뒷면을 메모지로 사용한다.	1	2	3	4	5
4-11	나는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벼룩시장에 내놓거나 필요한 물건으로 교환해서 사용한다.	1	2	3	4	5
4-12	나는 건전지는 사용 후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수거한다.	1	2	3	4	5
4-13	나는 생활쓰레기 재활용 방법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4-14	나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분리수거해서 버린다.	1	2	3	4	5
4-15	전자제품 구입 시 전기 소모량을 확인하고 구매한다.	1	2	3	4	5
4-16	전자제품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수리해서 사용후 처분한다.	1	2	3	4	5
4-17	오래된 신발이나 가방은 수선해서 사용한 후 버린다.	1	2	3	4	5
4-18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꼭 짜서 따로 버린다.	1	2	3	4	5

## 5. 귀하의 소비생활(소비, 자원, 절약)에 대한 학습 경험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1. 귀하는 소비생활(소비, 자원, 절약)에 대해 학습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번 문항으로)

5-2. 귀하는 소비생활(소비, 자원, 절약)에 대한 학습을 주로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 ① 학교                          ② 가정  
③ 대중매체                    ④ 기타( )

5-3. 귀하의 부모님께서는 소비(소비, 자원, 절약)생활에 대한 교육을 자주 하시는 편입니까?

- ① 자주한다                    ② 자주하지 않는다

5-4. 귀하가 소비생활(소비, 자원, 절약) 교수 학습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 ① 교과서 위주의 강의식 수업  
② 유인물 및 PPT 등을 이용한 강의식 수업  
③ 영상매체를 이용한 토론식 수업  
④ 기타( )

## 6. 귀하 및 가정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6-2. 귀하 아버지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 이하                    ② 대졸(전문대졸) 이상

6-3. 귀하 어머니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 이하                    ② 대졸(전문대졸) 이상

6-4. 귀하 아버지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① 전문·관리종사자  | ② 사무종사자     |
| ③ 서비스·판매종사자 | ④ 농·축·어업종사자 |
| ⑤ 단순노무종사자   | ⑥ 무직 및 전업주부 |

6-5. 귀하 어머니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① 전문·관리종사자  | ② 사무종사자     |
| ③ 서비스·판매종사자 | ④ 농·축·어업종사자 |
| ⑤ 단순노무종사자   | ⑥ 무직 및 전업주부 |

6-6. 귀하 부모님의 맞벌이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① 맞벌이 | ② 외벌이 |
|-------|-------|

6-7. 귀하 가정의 월평균 가계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① 200만원 미만          | ②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 ③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 ④ 600만원 이상          |

6-8. 귀하의 월평균 용돈은 얼마나 되십니까?

- |                   |                  |
|-------------------|------------------|
| ① 5만원 미만          | ②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
| ③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 | ④ 15만원 이상        |

6-9. 귀하 가정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래의 표에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생활수준		
상	9. 상	
	8. 중	
	7. 하	
중	6. 상	
	5. 중	
	4. 하	
하	3. 상	
	2. 중	
	1. 하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